1부 세 가지 일반 원리

죄 죽이기 3편 결심과 금식으로는 왜 안 될까 ·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인다

1부 3장(57~66쪽)

> ❓ **새해 결심, 금식, 기도 시간 늘리기까지 다 해 봤는데 왜 나는 그대로일까?**

🧭 흐름 한눈에

오웬은 로마서 8:13의 “영으로써”에서 출발한다. 앞 장에서 이 '영'이 성령이심을 확인했으므로, 죄 죽이기를 결정하는 원인은 오직 성령이라고 선언한다. 먼저 성령을 뺀 처방이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든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수단을 쓰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마저 원천인 것처럼 잘못 쓰기 때문이다. 이어서 죄 죽이기가 성령의 일인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든다. 성령이 죄를 죽이시는 방식은 세 가지다. 은혜의 열매를 채우시고, 죄의 뿌리를 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그분 없이 혼자 싸우는 싸움은 끝없는 헛수고라는 탄식으로 오웬은 장을 맺는다.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1. 죄를 죽이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3장)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하고, 앞 장에서 그 '영'이 성령이심을 이미 밝혔다. 그러므로 이 일에 충분한 분은 성령뿐이고, 그분을 뺀 방법과 수단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기 뜻대로 일하신다. 주도권이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실패한 청년에게 오히려 기쁜 소식이다. 이 싸움의 승패가 내 의지력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죄 죽이기의 결정적 원인은 성령이다
2. 로마서 8:13의 "영"은 성령이시다
3. 성령을 뺀 방법은 모두 헛되다
4. 주도권은 내 노력이 아닌 성령께 있다
5. 승패가 내 의지력에 달려 있지 않다

> **로마서 8:13 ★**
> 죄를 죽이는 일이 “영으로써”, 곧 성령으로 된다는 강론 전체의 기초 본문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 2. 성령을 뺀 처방은 왜 낫게 하지 못하는가 (3장)

사람들은 성령 말고 다른 치료책을 찾지만 그것으로는 낫지 않는다. 오웬은 17세기 논쟁 상황에서 대표적인 예로 당시 로마 가톨릭의 경건 체계를 든다. 서약, 기도, 금식, 고행(몸을 괴롭혀 죄를 다스리려는 수행)이 모두 “죄를 죽이기 위해서”라는 명분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오웬이 문제 삼는 것은 열심 자체가 아니라 그 바탕의 무지다. 영적으로 살아 있지 않은 사람 안의 죄를 죽이려 하고, '여분의 공로'를 쌓으라고 가르쳐 죄 죽이기에 독을 섞는다는 것이다. 칼끝은 개신교인에게도 향한다.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외적 훈련과 율법적 의무만을 유일한 길처럼 내세우는 개신교인도 같은 잘못에 빠졌다고 오웬은 말한다. 그는 이 현실에 대한 우려가 책을 낸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7장에서 다시 다룬다고 예고한다.

2. 깨닫게만 하고 못 고치면 절망뿐이다
3. 공로 사상은 죄 죽이기에 독을 섞는다
4. 개신교인도 같은 길을 되풀이한다
5. 그리스도 없는 노력은 복음을 모르는 것

> **요한계시록 9:3**
> 오웬이 “어떤 사람들”의 해석으로 소개한 “황충” 비유의 본문(오웬 자신의 주석은 아님)
>
>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 **요한계시록 9:6**
> 죄를 깨닫기만 하고 고침은 받지 못해 “죽기를 구하는” 비참을 그림
>
>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 3. 실패의 첫째 이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수단 (3장)

아무리 애써도 죄 하나 제대로 죽지 않는 첫째 이유는, 쓰는 수단 상당수를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정하신 적이 없다는 데 있다. 오웬이 드는 예는 거친 옷, 서약, 보속(지은 죄의 값을 고행이나 선행으로 스스로 갚으려는 행위)을 위한 고행, 금욕 훈련, 수도 생활이다. 그의 원칙은 분명하다. 신앙의 일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수단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오웬은 당시 일부 사람들이 고집하던 자기 학대식 방법도 여기에 넣는다. 오늘로 옮기면, 나를 벌주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거기서 거룩함을 짜내려는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

1.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수단은 열매가 없다
2. 거친 옷·서약·보속 고행·수도 생활

4. 사람의 계명은 헛된 경배다

> **이사야 1:12**
>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종교 행위를 꾸짖으심
>
>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 **마태복음 15:9**
>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것은 헛된 경배라는 증언
>
>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 4. 실패의 둘째 이유: 정하신 수단을 원천으로 착각함 (3장)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쓰면서도 그 자리와 용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기도, 금식, 깨어 있음, 묵상은 죄를 죽이는 데 분명히 쓸모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일 뿐인데, 사람들은 각각을 샘 자체로 여긴다. 이 수단들은 성령과 믿음 아래에서만 수단 노릇을 하는데도,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면 죄가 저절로 죽는다고 믿는 것이다. 옛 수도자들이 몸에 끔찍한 폭력을 가한 것도 여기서 나왔다. 그들은 부패한 본성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몸을 죽였다. 오늘의 모습도 비슷하다. 죄책감이 덮치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열기가 남아 있는 동안만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본다. 열기가 식으면 죄가 다시 주인 자리를 되찾는다. 오웬의 비유는 이렇다. 의무는 약한 영혼에게 힘을 주는 좋은 양식이지만 병든 영혼을 고치는 약은 아니며, 땀 흘려 의무를 행한다고 병이 땀으로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1. 기도·금식은 물줄기이지 샘이 아니다
2. 수단은 성령과 믿음 아래서만 힘이 있다
3. 고행은 본성 대신 몸을 괴롭혔다

디모데후서 3:7

늘 애쓰지만 끝내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로마서 7:24 ★

“사망의 몸”의 출처(로마서 7:18-25 단락). 죽일 대상은 육체가 아니라 부패한 본성이다

“신앙의 의무들은 … 병든 영혼을 고쳐주는 치료약이 되지는 않는다.”

📜 5. 왜 죄 죽이기가 성령의 일인가: 약속과 그리스도의 선물 (3장)

오웬은 두 가지 근거를 든다. 첫째,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성령을 약속하셨다. 죄 죽이기는 결국 돌 같은 마음, 곧 완고하고 교만하며 믿지 않는 굳은 마음을 없애는 일이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어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한 뒤에도 하나님은 친히 고치시겠다고 하신다. 둘째, 죄를 죽이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그 은혜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 온다. 그리스도는 회개를 주시려고 높임을 받으셨고 죄 죽이기는 회개의 핵심 부분이다. 그 일을 위해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다. 오웬은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을 빌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일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정리한다.

1. 죄 죽이기는 돌 같은 마음을 없애는 일
2.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성령을 약속하셨다
3. 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친히 고치신다
4.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는 성령으로 온다
5.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일하신다

에스겔 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26

같은 약속의 반복.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심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사야 57:17-18 ★

다른 수단이 실패한 뒤에도 하나님이 친히 고치시겠다는 약속(시리즈 핵심 구절 이사야 57:18-19와 이어진 본문)

요한복음 15:5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원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도행전 5:31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주시려고 높아지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33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 6. 성령은 어떻게 죄를 죽이시는가: 세 가지 방식 (3장)

첫째, 성령은 마음을 육체의 열매와 정반대인 은혜의 열매로 채우신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맞세우는데, 둘은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동시에 넘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은혜가 자라 꽃피면 그 은혜가 숨은 죄와 움직이는 죄를 밀어낸다. 둘째, 성령은 죄의 뿌리와 습관에 직접 힘을 가해 약하게 하고 부수신다. 이사야가 말하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처럼, 성령은 정욕의 뿌리까지 태우는 불이시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신다. 셋째, 성령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가져와 우리를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신다. 오웬은 이 셋째 방식을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다고 말한다.

1. 은혜를 채워 죄의 자리를 빼앗으신다
2. 두 열매는 동시에 넘칠 수 없다
3. 죄의 뿌리와 습관을 직접 태우신다
4.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신다
5. 믿음으로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신다

> **갈라디아서 5:19-23**
>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정반대임을 보이는 대조
>
>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17** ★
> 육체와 성령이 서로 거스르므로 동시에 강할 수 없다

> **갈라디아서 5:24**
>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
>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갈라디아서 5:25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것이 길이다

>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디도서 3:5

이 일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부름

>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사야 4:4

더러움을 씻고 태우시는 “소멸하는 영”으로서의 성령

>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 7. 성령이 하신다면 왜 나에게 명령하시나 (3장)

예상되는 반론은 이렇다. 성령만 하실 수 있다면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 오웬은 두 가지로 답한다. 첫째, 우리 안의 모든 선한 일이 성령의 일이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도 그분이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행하고, 믿고, 기도하라고 명령한다. 죄 죽이기도 다르지 않다. 둘째, 성령은 우리의 순종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양심과 감정이 제 본성대로 움직이도록 그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자유를 짓밟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은 싸울 힘을 주는 것이지 게으를 핑계가 아니다.

1.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의 일이자 우리의 일
2. 성령은 우리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신다
3. 이성·의지·양심·감정을 통해 일하신다

5. 도우심은 게으를 핑계가 아니다

빌립보서 2:13

하나님이 소원과 행함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고 행한다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사야 26:12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11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

>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골로새서 2:12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음

>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26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 8. 성령 없이 혼자 싸우는 영혼의 비참함 (3장)

장 끝에서 오웬은 목회자로서 탄식한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영혼은 싸워야 한다는 압박만 받고 싸울 힘은 없다. 그들은 율법에 쫓기고 죄에 얻어맞는다. 때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가 일으킨 먼지에 죄가 가려 안 보였을 뿐이다. 두려움과 슬픔이 가라앉은 것을 승리로 착각한 것이고, 상황이 돌아오면 죽었다던 정욕이 상처 하나 없이 다시 나타난다. 이사야의 말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힘을 쓰는 셈이다. 그런데 이 싸움을 아예 멸시하며 죄 아래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더 비참하다. 육체의 욕망에는 끝이 없어 결코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이 탄식은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 오라는 초대로 읽어야 한다.

1. 성령 없는 싸움은 힘없는 싸움이다
2. 율법에 쫓기고 죄에 얻어맞는다
3. 감정이 가라앉은 것은 승리가 아니다
4. 죽었다던 정욕이 멀쩡히 돌아온다
5. 싸움을 멸시하는 자는 더 비참하다

이사야 55:2

오웬이 장절 표시 없이 빌려 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함”. 헛된 노력의 그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 성령으로 죽이면 살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탄식의 배경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다시는 안 해” 결심과 서약을 더 세게 하기	결심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
금식·기도 시간을 채우면 죄가 저절로 죽는다고 믿기	기도와 금식을 성령께 나아가는 통로로 쓰기
나를 벌주는 규칙과 고행으로 죄값을 치르려 하기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음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자책의 열기가 식은 것을 이겼다고 여기기	성령께서 은혜의 열매를 채워 죄의 자리를 빼앗으시도록 하기
“성령이 하시겠지” 하며 손 놓기	성령께서 내 의지와 양심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도록 내 몫의 순종을 하기

왼쪽은 모두 '내 힘의 처방'이다. 오웬은 결심이나 기도를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들의 자리를 바로잡으라고 한다. 같은 기도와 같은 금식도 성령과 믿음 아래에서 쓰일 때 비로소 죄를 죽이는 수단이 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

내재하는 죄

정욕(욕망)
하나님 뜻을 거슬러 무언가를 끈질기게 원하게 만드는 내 안의 죄의 성향으로, 성적 욕망만 가리키지 않는다.

육신
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안의 부패한 본성.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정하신 통로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 같은 것이다.

율법적 두려움
그리스도 없이 벌과 정죄가 무서워서만 죄를 피하려는 두려움.

결정적 원인
어떤 일을 실제로 일으키고 이끄는 원인으로, 이 편에서는 성령을 가리킨다.

고행·보속
몸을 괴롭혀 죄를 다스리거나 지은 죄의 값을 스스로 갚으려는 행위.

여분의 공로
구원에 필요한 것보다 더 쌓은 선행이 공로로 남는다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으로, 오웬은 이것이 죄 죽이기에 독을 섞는다고 본다.

돌 같은 마음
완고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굳은 마음.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죄를 죽이는 결정적 원인은 오직 성령이시다(로마서 8:13).
- 결심, 서약, 고행, 자책은 성령 없이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뿐 죄를 죽이지

-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을 없애려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는 성령으로 온다.
- 성령은 은혜를 채우시고, 뿌리를 태우시고,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여 죄를 죽이신다.
-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 죄 죽이기는 고행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순종이다.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3장 두 번째 일반 원리: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